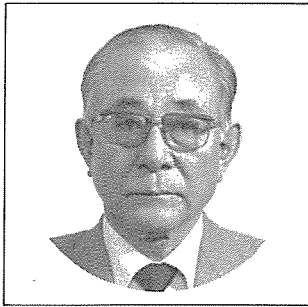


치밀 정밀하지 못한 國民性의 탈피



申 応 均
(科總고문)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진흥함에 있어서 짐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문지향적인 국민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수학적, 공리적 기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리적인 사고방식이 약한 것이다.

가령 “어디 어디 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고 길을 물어도 “800미터가량 되요”라는 답을 듣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바로 거기예요”, 또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조금만 걸으면 되요”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예사이다.

“오늘 이만한 고기를 잡았네”하고 오른손을 내밀고 왼손으로 고기의 크기를 오른 손과 팔에 표시하여 보이는 것도 “오늘 25cm쯤되는 고기를 잡았어”라고 추상적으로 나타내면 그 크기가 문득 떠오르지 못하는 국민성에 기인한다.

미터법이 시행된지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쇠고기를 파는 단위가 100그램당 얼마(또는 1킬로그램당 얼마)가 아니고 400그램당 얼마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말은 CGS단위를 쓰고 있지만, 머리는 아직 척관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기술자를 천시해온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 사람들은 화이트칼라가 되려고 하고 블루칼라가 되기를 회피한다. 그러나 기술자를 우대하는 독일에서도 연공을 쌓은 기능공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보다도 급여가 많은 경우가

흔하다.

직업에는 귀천과 고하가 없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진 사람을 우대하고, 경험을 쌓고, 오래 근무하면 대학출신보다도,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보다도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져있다면 구태여 대학에 갈 것 없이 공업고등학교나 공업전문대학을 나와서 취직하는 율이 높아질 수 있고, 너도 나도 대학교 가려고 애쓰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한국인의 치밀성이라 할까, 정밀성이라 할까, 이런 것의 부족은 언어의 사용에도 나타나 단어를 정확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 신문에 흔히 탈바꿈한다는 뜻으로 “둔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둔갑”이란 원래 “술법을 써서 마음대로 자기 몸을 감추거나 다른 것으로 변함”을 말하고 또는 “남의 눈을 현혹하게 하여 자기 몸을 감추는 술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저 변신하는 경우에는 뉘앙스가 맞지 않는다. 정확한 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용어조차도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서 수리적인 정확을 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역시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라는 국민성이 치밀, 정확을 생명으로 하는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이것은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에 틀림없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